

어휘와 문법 3



INTERMEDIATE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실용 한국어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실용 한국어

어휘와 문법 ③

‘어휘와 문법 3’은

2021년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기본 교재 개정 연구팀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어휘

1과	열심히 배우면서 일하고 있어요	04
2과	테니스 칠 줄 알아요?	08
3과	어디에서 만날까?	12
4과	필요한 물건은 같이 사러 가자	16
5과	뉴욕에 가 본 적이 있어요?	20
6과	입어 봐도 되지요?	24
7과	본선에서 상을 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8
8과	한국어로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들을 찾아보는 게 어때?	31
9과	면을 살짝 볶으면 훨씬 더 맛있거든	35
10과	사람마다 다르지만 친해지기 전까지는 반말을 잘 안 해요	39
11과	배우들이 연기를 정말 잘한다고 해요	43
12과	양치질을 못 할 정도로 손목이 아파	47
13과	생활비가 많이 절약되더라고요	52
14과	한국으로 여행을 한번 가 보지 그래요?	55

01 열심히 배우면서 일하고 있어요

1-1

☐ **입학하다** 학생이 되어 공부하기 위해 학교에 들어가다.

올해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 **졸업하다** 학교에서 하는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이 끝나다.

4년 후에 대학교를 졸업해요.

☐ **휴학하다** 일정 기간 동안 학교를 쉬다.

어학연수를 가려고 1년 동안 휴학했어요.

☐ **복학하다** 학교를 쉬었던 학생이 다시 학교에 돌아가다.

어학연수를 다녀온 후 바로 복학했어요.

☐ **취직하다** 직업을 잡아 직장에 나가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 **휴직하다**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다.

2년 동안 휴직하고 유학을 갈까 해요.

☐ **회사를 그만두다** 그만두다: 하던 일을 안 하다.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떠날 계획이에요.

☐ **아르바이트를 하다**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일을 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 **이사하다** 사는 곳을 다른 곳으로 옮기다.
집이 회사에서 멀어서 지난주에 회사 근처로 이사했어요.

☐ **약혼하다/결혼하다** 약혼하다: 결혼하기로 약속하다.
결혼하다: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다.
올해 약혼하고 내년엔 남자 친구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 **이성 친구가 생기다** 이성 친구: 성이 다른 친구로, 보통 연인 관계에 있는 친구.
친한 친구에게 남자 친구가 생겼는데 저도 이성 친구가 생기면 좋겠어요.

☐ **취미 생활을 하다** 취미 생활: 취미를 정하여 즐기면서 사는 생활.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요.

1-2

☐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새롭다: 지금까지 있는 적이 없다.

내년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볼까 해요.

☐ **회사를 옮기다** 옮기다: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바꾸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일이 저하고 맞지 않아서 회사를 옮기고 싶어요.

☐ **새로운 것을 배우다** 배우다: 지식이나 기술 등을 얻거나 익히다.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일을 좋아해요.

☐ **다이어트를 하다** 먹는 것을 줄이거나 운동을 하여 몸무게를 줄이다.

요즘 살이 찌서 맞는 옷이 없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 **봉사 활동을 하다** 봉사 활동: 다른 사람을 위해 힘쓰는 활동.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 **돈을 모으다** 돈을 쓰지 않고 쌓아 두다.

여행을 가고 싶어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 **인턴으로 일하다** 인턴: 회사에 취직하기 전에 실습 과정을 받는 사람. 또는 그 과정.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요.

☐ **운전면허를 따다**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다.

내년에는 꼭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요.

☐ **자격증을 따다**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인정한 증서를 받다.

이번 방학에는 꼭 컴퓨터 자격증을 딸 거예요.

☐ **집을 마련하다** 집을 가지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집을 마련했어요.

☐ **유학을/어학연수를 가다** 유학: 공부하기 위해 외국에서 사는 것.

어학연수: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그 나라에

직접 가서 공부하는 것.

내년에 한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해요.

내년에는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가려고 해요.

☐ **헬스클럽/학원에 등록하다** 등록하다: 어떤 기관에 다니기 위해 이름을 올리다.

운동을 하려고 헬스클럽에 등록했어요.

영어를 공부하려고 학원에 등록했어요.

02 테니스 칠 줄 알아요?

2-1

☐ **수영** 스포츠나 놀이로 물속에서 헤엄치는 일.

저는 퇴근한 후에 매일 수영을 해요.

☐ **태권도** 한국 전통 무예를 바탕으로 한 운동.

이번 기회에 태권도를 꼭 배우고 싶어요.

☐ **요리** 음식을 만드는 것.

요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설거지하는 것은 싫어요.

☐ **악기 연주** 피아노, 기타 등의 악기를 다루어 음악을 들려주는 일.

가: 어떤 악기 연주를 할 줄 알아요?

나: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서 피아노 연주는 자신 있어요.

☐ **낚시** 물고기를 잡는 것.

주말에는 아버지하고 자주 낚시를 해요.

☐ **팬클럽 활동** 어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에서 활동함.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가수의 팬클럽 활동을 했어요.

☐ **음악 감상** 음악을 즐기고 평가함.

오랜만에 음악 감상을 할까 해요.

☐ **공연 관람** 음악, 무용, 연극 등의 공연을 구경함.

시간이 나면 혼자서 공연 관람을 자주 해요.

☐ **텔레비전 시청** 텔레비전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

텔레비전 시청은 2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아요.

☐ **에스엔에스(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나 의견 등을 공유하는 것.

요즘은 에스엔에스를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 **인터넷 개인 방송** 개인이 콘텐츠를 만들어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것.

인터넷 개인 방송에 도전해 보고 싶어요.

2-2

☐ **스트레스가 풀리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다.

가: 뭘 하면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나: 우리 같이 노래방에 갈까요?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가 풀릴 거예요.

☐ **마음이 차분해지다** 마음이 가라앉아 조용해지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서 좋아요.

☐ **피로가 풀리다** 일에 시간과 힘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서 몸이 힘든 상태가 없어지다.

폭 쉬고 나면 피로가 풀릴 거예요.

☐ **체력이 좋아지다** 활동할 수 있는 몸의 힘이 전보다 나아지다.

꾸준히 운동을 해서 체력이 좋아졌어요.

☐ **기분 전환이 되다** 기분 전환: 좋지 않은 기분을 바꿈.

항상 이 음악을 듣고 나면 기분 전환이 돼요.

☐ **몸이 가벼워지다** 몸무게가 줄어 몸의 움직임이 편해지다.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면 몸이 가벼워질 거예요.

☐ **기분이 상쾌해지다** 기분이 시원하고 산뜻하다.

운동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져요.

- ☐ **집중력이 좋아지다** 집중력: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쓰는 것.
명상을 하면 집중력이 좋아질 거예요.
-

- ☐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다** 피로한 몸이나 마음이 쉬게 되어서 다시 힘이 생기게 되다.
여행을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는 것 같아요.
-

- ☐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다** 모르는 사람인데 사귀게 되다.
취미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

03 어디에서 만날까?

3-1

- ☐ **약속을 정하다/잡다**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하려고 시간과 날짜 등을 미리 정하여 두다.

토요일에 만나는 것으로 약속을 정할까요/잡을까요?

- ☐ **약속을 취소하다** 약속을 없었던 일로 하다.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되어서 약속을 취소했어요.
-

- ☐ **약속을 잊어버리다/깜빡하다** 약속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다.
약속을 잊어버려서 약속 장소에 못 나갔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약속을 깜빡했어요.
-

- ☐ **약속이 겹치다** 약속이 동시에 여러 개가 있다.
가: 약속이 겹쳤는데 어떻게 하지요?
나: 그러면 친구에게 전화해서 다시 약속을 잡으세요.
-

- ☐ **약속 장소에 못 나가다** 사정이 생겨서 만나기로 한 장소에 못 가다.
너무 아파서 약속 장소에 못 나갔어요.
-

- ☐ **시간을/장소를 정하다** 정하다: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다.
빨리 약속 시간/장소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

- ☐ **장소를 옮기다**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꾸다.
조용한 곳으로 장소를 옮기고 싶어요.
-

☐ **시간을 당기다** 시간을 앞으로 옮기다.

가: 미안한데 약속 시간을 조금 당길 수 있어요?

나: 네.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요?

☐ **시간을/장소를 바꾸다** 시간이나 장소를 다른 시간이나 장소로 다시 정하다.

약속 시간을/장소를 바꾸려고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 **시간을 미루다/늦추다** 시간을 나중에로 옮기다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 시간을 미뤘어요/늦췄어요.

3-2

☐ **사고가나다** 뜻밖에 좋지 않은 일(예 자동차 사고)이 일어난다.

집에 가는데 사고가 나서 길이 막혔어요.

☐ **사정이 있다** 일이 일어난 이유가 있다.

저는 사정이 있어서 어제 약속 장소에 못 갔어요.

☐ **일이 밀리다** 할 일이 끝나지 못한 채 쌓이다.

지난주부터 일이 밀려서 계속 야근을 하고 있어요.

☐ **급한 일이 생기다** 급하다: 빨리 처리해야 할 상태이다.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가 봐야 할 것 같아.

☐ **버스를/지하철을 놓치다** 타려고 하던 버스나 지하철을 타지 못하게 되다.

출근하는데 버스를/지하철을 놓쳐서 지각했어.

☐ **위치가 애매하다** 장소가 분명하지 않다.

위치가 애매해서 찾기가 어려웠어요.

☐ **찾아가기 힘들다** 누구를 만나거나 무엇을 하기 위해 가는 것이 어렵다.

차가 없으면 찾아가기 힘든 곳이에요.

☐ **인원이 변경되다** 사람 수가 다르게 바뀌다.

인원이 변경되어서 예약을 다시 해야 해요.

☐ **분위기가 별로이다** 분위기: 어떤 곳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기운이나 기분.

그 식당은 음식은 맛있는데 분위기가 별로예요.

☐ **비용이 많이 들다** 어떤 일에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다.

새집으로 이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04 필요한 물건은 같이 사러 가자

4-1

- ☐ **청소기를 돌리다** 청소기를 움직이게 하다.
윗집에서 밤에 청소기를 돌려서 잠을 잘 못 잤어요.

- ☐ **걸레질을 하다** 더러운 것을 걸레로 닦다.
이걸 사용하면 걸레질을 할 때 훨씬 편해요.

- ☐ **먼지를 털다** 털다: 붙어 있는 것이 떨어지게 흔들거나 치다.
창문을 연 다음에 먼지를 털어라.

- ☐ **유리창을 닦다** 닦다: 더러운 것을 없애기 위해 문지르다.
밖이 잘 안 보여서 유리창을 닦아야 할 것 같아.

- ☐ **분리수거를 하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 종류별로 나누어서 쓰레기를 버리다.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해야 해요.

- ☐ **빨래하다** 더러운 옷을 물에 빨다.
빨래하고 나면 청소도 해야 해요.

- ☐ **세탁기를 돌리다** 세탁기를 움직이게 하다.
밤에 세탁기를 돌리면 안 돼요.

- ☐ **빨래를 널다** 빨래를 말리기 위해 펼쳐 놓다.
빨래를 널어야 하는데 깜빡 잊어버렸어.

☐ **빨래를 개다** 옷 등을 접어서 단정하게 만들다.

빨래를 개서 옷장에 넣어라.

☐ **다림질을 하다** 다리미로 구겨진 옷 등을 펴다.

이 셔츠는 입기 전에 항상 다림질을 해야 해요.

☐ **장을 보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

오랜만에 장을 보려고 시장에 갔어요.

☐ **음식을 만들다** 요리하다.

가: 지금 무슨 음식을 만들고 있어?

나: 비빔밥을 만들고 있는데, 같이 먹자.

☐ **상을 차리다**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상 위에 잘 벌려 놓다.

급하게 상을 차려서 음식이 많이 없어요.

☐ **상을 치우다**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상을 정리하다.

밥을 먹고 나면 꼭 상을 치워 주세요.

☐ **설거지를 하다** 먹고 난 뒤의 그릇을 씻어 정리하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꼭 노래를 들어요.

4-2

☐ **고장이나다** 이상이 생겨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다.

지금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켤 수가 없어요.

☐ **얼룩이 생기다** 더러워진 자국이 있다.

옷에 얼룩이 생겼을 때 이 세제를 사용해 보세요.

☐ **전구가 나가다** 전구: 전기를 통하여 빛을 내는 기구.

전구가 나가서 깜깜해요.

☐ **불이/전기가 나가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다.

지금 불이/전기가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 **변기가 막히다** 막히다: 통할 수 없게 되다.

이 화장실은 변기가 막혀서 사용할 수 없어요.

☐ **바람이 들어오다** 들어오다: 밖에서 안으로 오다.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너무 추워.

☐ **전구를 갈다** 전구를 다른 것으로 바꾸다.

전구를 갈고 나면 다시 방이 밝아질 거야.

☐ **페인트를 칠하다** 페인트를 바르다.

어제 하루 종일 벽에 페인트를 칠했어요.

☐ **고치다/수리하다**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된 물건을 쓸 수 있게 하다.

노트북이 고장 나서 고치러/수리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 **도배를 하다** 벽에 벽지를 바르다.

도배를 하니까 새집 같아요.

☐ **변기를 뚫다** 뚫다: 막힌 것을 통하게 하다.

가: 변기가 막혔는데 어떻게 하지요?

나: 이걸 사용하면 쉽게 변기를 뚫을 수 있어요.

☐ **커튼을 달다** 달다: 물건을 일정한 곳에 걸거나 붙어 있게 하다.

새 커튼을 다니까 방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 **얼룩을 없애다/지우다** 얼룩: 커피나 주스 등이 묻어서 생긴 것.

커피를 마시다가 생긴 얼룩을 없애려고/지우려고 여러 번 옷을 빨았어요.

☐ **못을 박다** 박다: 두드리거나 밀어서 꽂히게 하다.

시계를 걸려고 벽에 못을 박았어요.

05 뉴욕에 가 본 적이 있어요?

5-1

☐ **국내 여행** 나라 안의 다른 곳으로 가서 경치를 구경하고 문화를 체험하는 것.
이번 방학에는 1박 2일로 국내 여행을 가려고 해요.

☐ **수학여행** 실제로 보고 들어서 지식을 넓히기 위해 학생들이 교사를 따라 가는 여행.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경주에 가 본 적이 있어요.

☐ **해외여행** 다른 나라에 가서 경치를 구경하고 문화를 체험하는 것.
연휴가 되면 공항은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복잡해요.

☐ **배낭여행** 필요한 것을 배낭에 넣고 다니면서 돈을 적게 쓰고 간단하게 하는 여행.
한국으로 배낭여행을 가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 **자유 여행** 여행사 대신에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유롭게 다니는 여행.
작년에 프랑스로 자유 여행을 다녀왔어요.

☐ **자전거 여행** 자전거를 타고 하는 여행.
작년에 자전거 여행으로 전주에 다녀왔어요.

☐ **패키지여행** 여행사에서 미리 정해진 관광 일정대로 하는 단체 여행.
부모님은 자유 여행보다 패키지여행을 좋아하세요.

☐ **기차 여행**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여행.

역에서 친구들과 만나 기차 여행을 떠났어요.

☐ **가족 여행** 가족이 함께 다녀오는 여행.

다음 달에 발리로 가족 여행을 가려고 해요.

☐ **크루즈 여행** 유람선을 타고 하는 여행.

지중해로 10일간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 **신혼여행**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부부가 함께 가는 여행.

결혼하면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고 싶어요.

☐ **도보 여행** 기차, 자동차 등을 타지 않고 걸어서 하는 여행.

내년에는 꼭 도보 여행으로 부산에 가 보고 싶어.

☐ **졸업 여행**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가는 여행.

대학교 때 친한 친구들과하고 제주도로 졸업 여행을 갔어요.

☐ **자연 경관이 아름답다** 자연 그대로의 풍경이 예쁘고 곱다.

제주도에는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아요.

☐ **볼거리/먹을거리/놀거리가 많다** 볼거리: 사람들이 즐겁게 구경할 만한 것.
 먹을거리: 사람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음식.
 놀거리: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 하는 놀이 활동.

그곳에 가면 볼거리/먹을거리/놀거리가 많으니까 꼭 한번 가 보세요.

☐ **공기가 깨끗하다** 공기가 더럽지 않고 맑다.

공기가 깨끗해서 그런지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

☐ **사람들이 친절하다** 친절하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정하고 좋다.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다 친절해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 **현지 음식이 맛있다** 현지: 사물이 현재 있는 곳.

현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지 금방 적응했어요.

☐ **유적지가 인상적이다** 유적지: 역사적 유물이나 유적이 있는 장소.

이집트에 가 본 적이 있는데 유적지가 인상적이어서 또 가 보고 싶어요.

☐ **물가가 저렴하다** 물건값이 싸다.

이번에 여행한 나라는 물가가 저렴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 **야경이 멋지다** 밤의 경치가 보기에 좋다.

남산에서 본 야경이 너무 멋져서 잊을 수가 없어요.

☐ **독특한 기념품이 많다** 독특하다: 특별하게 다르다.

여기에는 독특한 기념품이 정말 많네요!

☐ **전통문화를 느끼다** 전통문화: 그 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 나라 고유의 문화.

한옥 마을에 가면 한국의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06 입어 봐도 되지요?

6-1

☐ **가격** 물건의 값.

이 옷은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서 안 사려고요.

☐ **실용성** 실제로 사용하는 정도.

이 핸드폰은 디자인과 실용성이 모두 뛰어나요.

☐ **유행** 옷차림이나 취미 등이 일시적으로 사회에 널리 퍼지는 것.

요즘 저 바지가 유행인 것 같아요.

☐ **색상** 빨강, 노랑, 파랑 등 물체가 나타내는 빛(색).

너한테는 밝은 색상의 옷이 잘 어울려.

☐ **할인 여부** 할인: 일정한 값에서 얼마를 뺀.

저는 쇼핑을 할 때 할인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봐요.

☐ **브랜드** 상표.

가: 옷을 살 때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나: 아니요. 저는 브랜드보다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 **품질** 상품의 질.

물건을 살 때는 무엇보다 품질이 제일 중요해요.

☐ **성능** 기계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이 컴퓨터는 생각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 **디자인** 상품이나 옷의 모양.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하려고요.

☐ **무상 수리 기간** 물건이 고장 났을 때 무료로 고칠 수 있는 기간.

이 노트북의 무상 수리 기간은 2년이에요.

6-2

- ☐ **사이즈가 맞지 않다** 사이즈: 신발이나 옷의 크기.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신발을 교환하려고요.

- ☐ **사용법이 불편하다** 어떤 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편하지 않다.
이 복사기는 사용법이 불편해서 그런지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 ☐ **품질에 문제가 있다** 품질: 상품의 질.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 **디자인/색상이 마음에 안 들다** 마음에 안 들다: 마음이나 감정에 좋지 않다.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디자인/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 ☐ **전원이 켜지지 않다** 전원: 기계에서 전기가 들어오는 곳.
어제부터 핸드폰의 전원이 켜지지 않아요.

- ☐ **마음이 바뀐다** 마음이 예전과 달라지다.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물건을 사려고요.

- ☐ **소리가 나지 않다** 소리: 귀에 들리는 것.
텔레비전의 소리가 나지 않아서 새 제품을 샀어요.

□ **물건이 생각과 다르다** 다르다: 같지 않다. 차이가 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이 생각과 달라서 환불했어요.

07 본선에서 상을 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7-1

☐ **예선에 나가다** 예선: 본선에 나갈 선수나 팀을 뽑는 것.

가: 나랑 같이 댄스 대회 예선에 나가 볼래?

나: 좋아. 내가 신청서를 작성할게.

☐ **수상을 하다/상을 타다/부상을 받다** 수상: 상을 받음.

부상: 상장과 함께 주는 상금이나 상품.

작년에 노래 대회에서 1등을 해서 상을 탔어요. 수상을 해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부상으로 노트북도 받았어요.

☐ **예선을 통과하다/본선에 진출하다** 통과하다: 경기나 대회에 합격하다.

본선: 경기나 대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우승자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선발.

진출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열심히 연습해서 꼭 예선을 통과하여 본선에 진출했으면 좋겠어.

☐ **신청서를 작성하다/제출하다** 작성하다: 서류 등을 써서 만들다.

제출하다: 만들어 내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고 싶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 **신나다** 기분이 아주 좋아지다.

저는 항상 새로운 일을 하면 신나요.

☐ **뿌듯하다** 기쁨이나 감동이 마음에 가득 차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

☐ **설레다** 마음이 조금 흥분되고 두근거리다.

내일 여행을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레요.

☐ **후회되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느끼게 되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그런지 많이 후회돼.

☐ **긴장되다/떨리다** 중요한 일을 할 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다.

발표할 때 긴장되기는/떨리기는 했지만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 **부끄럽다** 1. 창피하거나 떳떳하지 못하다.
2.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수줍다.

거짓말을 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 **걱정되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봐 마음이 편하지 않다.

실수할까 봐 너무 걱정돼서 그런지 잠을 거의 못 잤어.

7-2

☐ **실망하다** 어떤 일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섭섭하게 느끼다.

영화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서 실망했어요.

☐ **기대되다**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게 되다.

내년에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너무 기대돼요.

☐ **보람을 느끼다** 보람: 어떤 일을 한 뒤에 느끼는 좋은 결과나 만족감.

봉사 활동은 힘들기는 하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 **불안하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번 시험은 준비를 많이 못해서 그런지 너무 불안해.

☐ **자신감이 생기다** 자신감: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마음.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고 나서 한국어에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 **두근거리다** 놀라거나 불안하여 가슴이 자주 뛰다.

발표 순서를 기다리는데 너무 떨려서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 **성취감을 느끼다** 성취감: 목표로 한 것을 이루었다는 느낌.

조금씩 일을 배워 가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있어요.

08 한국어로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들을 찾아보는 게 어때?

8-1

☐ **적성** 어떤 일에 알맞은 사람의 성질이나 능력.

직업을 선택할 때는 적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 **전망** 미래의 상황.

이 일의 전망이 좋을지 잘 모르겠어.

☐ **재능**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재주와 능력.

한국어를 저렇게 잘하는 걸 보면 동생은 언어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 **근무 환경, 시간** 일하는 곳의 조건과 상황, 일하는 시간.

저는 야근을 하지 않는 근무 환경이 가장 중요해요. 저에게는 근무 시간이 제일 중요해서요.

☐ **안정성** 변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

공무원은 안정성이 높은 직업이라서 그런지 인기가 많아요.

☐ **인지도** 어떤 사람을 알아보는 정도.

그 드라마에 나온 배우들의 인지도가 모두 높아졌어요.

☐ **꿈** 실제로 이루고 싶은 목표, 희망.

저는 꿈이 없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 **복지** 행복한 인생.

그 회사는 일하는 직원들의 복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 **전공** 어떤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공부함.

저는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전공을 살려서 은행에 취직했어요.

☐ **급여** 일을 해서 받는 돈.

지금 다니는 회사는 급여가 높지만 일이 너무 많아요.

☐ **흥미/관심** 어떤 것에 마음이 가는 것.

그 일에 흥미가/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8-2

☐ **외국어를 공부하다**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우다.

가: 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데,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 먼저 외국어를 공부해 보는 게 어때요? 무역 일에는 외국어가 꼭 필요하니까요.

☐ **직업 체험을 해 보다** 체험을 해 보다: 실제로 한번 어떤 일을 해 보다.

요즘은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 **적성 검사를 하다** 타고난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하다.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적성 검사를 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다** 아르바이트: 직업이 아니라 임시로 하는 일.

저는 대학생 때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 봤어요.

☐ **자격증을 따다**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인정한 증서를 받다.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다양한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유망 직종을 찾아보다** 유망 직종: 앞으로 잘될 것 같은 직업의 종류.

가: 유망 직종을 찾아보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나: 앞으로는 인공지능(AI) 분야가 유망할 것 같아요.

☐ **인턴십에 참가하다** 인턴십: 학생들이 회사에서 일정 기간 직접 일을 해 보는 제도.

해외 인턴십에 참가하고 싶어서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 **유학을/어학연수를 준비하다** 준비하다: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미리 마련하다.

내년에 한국으로 유학을/어학연수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09 면을 살짝 볶으면 훨씬 더 맛있거든

9-1

- ☐ **호박** 길고 둥근 열매인 여름 채소.

호박을 작게 썰어 줘.



- ☐ **양파** 여러 겹이 모여서 둥글고 흰 덩이를 이룬, 달콤하면서도 맵고 냄새가 강한 채소.

양파를 썰 때는 눈물이 많이 나니까 조심해.



- ☐ **감자** 땅속에서 자라는 껍질은 얇고 연한 갈색이고, 속이 희고 둥근 채소.

배가 고파서 간식으로 감자를 삶아 먹었어요.



- ☐ **소금** 음식에 짭맛을 내는 하얀 가루.

소금은 거의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요.



- ☐ **간장** 음식에 간을 맞추기 위해 넣는 짭맛이 나는 검은색 물.

간장은 짜니까 국에 조금만 넣어도 돼요.



- ☐ **후추** 후추나무의 열매를 갈아서 만든 검은색의 매운 가루.

수프에 후추를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거든.



- ☐ **고추장** 고춧가루로 만든 빨간색의 매운맛이 나는 한국의 전통 소스.

고추장을 많이 넣으면 너무 매우니까 조금만 넣어.



- ☐ **식용유**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름.
먼저 식용유를 프라이팬에 조금 두르세요.



- ☐ **참기름** 고소한 맛과 냄새가 나는 참깨로 만든 갈색 기름.
참기름을 넣으면 음식이 더 고소해져서 맛있어요.



- ☐ **밀가루** 밀로 만든 가루.
나는 밀가루로 만든 '라면, 피자, 케이크' 같은 음식은 다 좋아하거든.



- ☐ **계란** 닭이 낳은 알 ≡ 달걀.
작년보다 올해 계란값이 더 오른 것 같아요.



- ☐ **생선** 먹으려고 잡은 신선한 물고기.
우리 가족은 생선을 잘 먹는데 나는 잘 못 먹어.



- ☐ **당근** 약간 단맛이 나는 긴 쫄 모양의 주황색 뿌리 채소.
당근이 눈에 정말 좋거든. 그러니까 많이 먹어.



9-2

☐ **굽다** 불에 익히다.

생선을 다 구웠으면 이것도 구워 주세요.

☐ **삶다** 물에 넣고 끓이다.

저는 아침에 항상 계란을 삶아서 먹어요.

☐ **데치다** 물에 넣어 살짝 익히다.

채소는 물에 푹 삶지 말고 살짝만 데쳐 주세요.

☐ **찌다** 뜨거운 김(공기)으로 익히거나 뜨겁게 만들다.

만두는 10분쯤 찌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 **끓이다** 물을 아주 뜨겁게 해서 거품이 생기게 하다.

차를 마시려고 물을 끓이고 있어요.

☐ **볶다** 음식이나 음식의 재료를 물이 거의 없거나 적은 상태로 불 위에서 뜨겁게 이리저리 자주 저으면서 익히다.

먼저 채소를 볶고 나서 고기를 넣어.

☐ **부치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익히다.

비 오는 날에는 김치전을 부쳐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 튀기다 끓는 기름에 넣어 익히다.

감자를 튀겨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많이 먹어서 그런지 요즘 살이 찌는 것 같아.

10 사람마다 다르지만 친해지기 전까지는 반말을 잘 안 해요

10-1

- ☐ **고개를 숙이다** 머리를 앞으로 기울어지게 하다.

한국에서는 어른에게 인사할 때는 고개를 숙여요.

- ☐ **두 손을 모으다** 두 손을 하나로 만듦다.

두 손을 모으고 인사하는 나라도 있어요.

- ☐ **볼을 맞대다** 볼을 서로 가깝게 마주 향하게 하다.

프랑스에서는 서로 볼을 맞대고 인사를 해요.

- ☐ **밥그릇을 들고 먹다** 밥을 먹는 그릇을 손에 놓고 먹다.

한국에서는 절대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돼요.

- ☐ **수저를 사용하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쓰다.

한국에서는 수저를 사용해서 음식을 먹어요.

- ☐ **물과 반찬이 무료이다** 무료이다: 요금이 없다.

한국에 있는 식당에서는 물과 반찬이 무료예요.

- ☐ **좌식 생활을 하다** 바닥에 앉아서 일을 하거나 지내는 생활을 하다.

좌식 생활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방바닥에 앉는 것이 힘들었어요.

☐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다** 들어가다: 밖에서 안으로 가다.

한국에서는 꼭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야 하니까 주의하세요.

☐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다** 낮잠: 낮에 자는 것.

스페인에는 ‘시에스타’라는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어요.

☐ **결혼 후에 성(이름)이 바뀌다** 성: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름.

일본에서는 결혼 후에 아내의 성이 남편의 성으로 바뀌어요.

☐ **야단맞을 때 눈을 쳐다보다** 쳐다보다: 아래에서 위를 올려 보다.

한국에서는 보통 야단맞을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아요.

☐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다: 서로 나뉘어 떨어지다.

저는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집이 좋아요.

10-2

- **놀라다** 1. 뛰어나거나 신기한 것을 보고 매우 감동하다.
2. 생각하지 않은 일이나 무서운 것으로 가슴이 뛰다.

저는 제니의 한국어 실력에 깜짝 놀랐어요.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 **창피하다** 어떤 일 때문에 남에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너무 창피해서 울 뻔했어요.

- **당황하다** 놀라거나 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계산을 하는데 지갑이 없어서 당황했어요.

- **부끄럽다** 1. 창피하거나 떳떳하지 못하다.
2.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수줍다.

너한테 거짓말을 한 게 너무 부끄러워.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건 너무 부끄러워요.

- **황당하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 진짜가 아니고 전혀 근거가 없다.
그 소문은 너무 황당해서 처음 들었을 때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 **민망하다** 고개를 들고 남을 보기가 부끄럽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잘한다고 하니까 좀 민망했어요.

☐ **웃음이나다** 웃는 일, 웃는 소리, 웃는 표정이 생기다.

친구가 '선생님'을 '생선님'이라고 말해서 웃음이 났어.

☐ **얼굴이 빨개지다** 얼굴이 빨간색으로 바뀌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가면 얼굴이 빨개져요.

☐ **손에 땀이 나다** 보통 운동을 하거나 날씨가 덥거나 긴장을 해서 손에 물기가 생기다.

발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어서 그런지 손에 계속 땀이 났어요.

☐ **가슴이 두근거리다** 놀라거나 불안해서 가슴이 자꾸 뛰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긴장돼서 항상 가슴이 두근거려요.

11 배우들이 연기를 정말 잘한다고 해요

11-1

- ☐ **영화** 2시간 정도의 영상으로 된 이야기.
전 영화 중에서 코미디 영화를 제일 좋아해요.

- ☐ **오페라** 배우가 대사를 노래로 부르며, 음악과 연극과 춤 등을 무대에서 하는 공연.
오페라를 좋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보러 가요.

- ☐ **스포츠 경기** 스포츠를 통해 이기고 지는 것을 겨루는 것.
나라마다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가 다른 것 같아. 한국은 스포츠 경기 중에서 야구가 인기가 많은 편이야.

- ☐ **콘서트** 음악을 연주해서 청중에게 들려주는 모임.
10월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고 해요.

- ☐ **박람회** 여러 가지 물품을 한 곳에 모아 놓고 팔고 사거나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행사.
취업 박람회에 가면 일자리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다고 해요.

- ☐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관객에게 연기를 보이는 것.
퇴근하고 나서 연극을 보러 가려고요.

- ☐ **발레** 무대에서 말 없이 춤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무용.
지난주에 본 발레 공연이 너무 좋아서 나도 발레를 배워 볼까 해.

- ☐ **음악회** 직접 연주되는 음악을 감상하는 모임.
다음 주에 같이 음악회에 가자.

☐ **팬미팅** 연예인처럼 유명한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는 팬들과 만나서 즐기는 모임.
제가 좋아하는 배우의 팬미팅이 한국에서 열린다고 해요.

☐ **뮤지컬** 무대에서 음악, 노래, 무용을 함께하는 즐거리가 있는 공연.
그 뮤지컬은 인기가 많을 테니까 빨리 예매하세요.

☐ **민속 공연** 옛날부터 내려오는 습관, 풍습, 전통문화를 담은 공연.
가: 한국의 민속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나: 에스엔에스(SNS)에서 '아리랑' 공연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 **연주회** 음악을 연주하여 청중에게 들려주는 모임.
저는 주말마다 피아노 연주회에 가요.

☐ **전시회(그림, 사진, 유물)** 특정한 물건을 놓아 두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모임이나 행사.
그 전시회에는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이 정말 많다고 해요.

11-2

- ☐ **볼거리가 많다** 볼거리: 사람들이 즐겁게 구경할 만한 것.
박람회 가면 볼거리가 정말 많으니까 꼭 가 보세요.
-
- ☐ **작품성이 뛰어나다** 작품이 가지는 예술적 가치가 매우 훌륭하다.
그 영화는 작품성이 뛰어나서 많은 상을 받았어요.
-
- ☐ **표현력이 뛰어나다**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나 몸으로 나타내는 능력이 매우 훌륭하다.
그 배우는 표현력이 뛰어나서 좋은 배우가 될 것 같아요.
-
- ☐ **흥미진진하다** 가득 차서 넘칠 정도로 흥미가 매우 많다.
어제 본 영화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
-
- ☐ **연기를 잘하다** 연기: 배우가 역할의 인물, 성격, 행동을 표현하는 일.
그 배우가 정말 연기를 잘한다고 해요.
-
- ☐ **줄거리가 흥미롭다** 줄거리: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의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
이 영화는 줄거리가 정말 흥미롭다고 해요.
-
- ☐ **연주를 잘하다** 연주: 악기를 사용해서 음악을 표현하거나 들려주는 일.
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연주를 잘할까요?
나: 맞아요. 정말 대단해요.
-

☐ **환상적이다** 어떤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그 콘서트는 정말 환상적이어서 절대 잊을 수 없어.

☐ **신기하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보통의 것과는 다르고 놀랍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쓰는지 너무 신기해요.

12 양치질을 못 할 정도로 손목이 아파

12-1

- ☐ **상처가 나다** 상처: 몸을 다쳐서 생긴 것.
어제 계단에서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났어요.

- ☐ **인대가 늘어나다** 인대: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곳의 주변을 둘러싼 것.
축구를 하다가 좀 다쳤는데 의사 선생님이 발목의 인대가 늘어났다고 했어요.

- ☐ **발목을 삐다** 발과 다리가 이어져 있는 부분의 뼈가 어긋나다.
급하게 달리다가 발목을 뺨 뻘뻘했어요.

- ☐ **허리를 삐끗하다** 허리의 뼈가 어긋나다.
무거운 화분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 ☐ **손가락을 베이다** 베이다: 날카로운 것으로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치다.
사과를 깎다가 손가락을 베였어요.

- ☐ **손을 데다** 데다: 불이나 뜨거운 것에 피부가 상처를 입다.
뜨거운 냄비를 들다가 손을 델 뻘뻘했어요.

- ☐ **약을 먹다** 약: 병이나 상처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려고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하는 것.
감기에 걸렸을 때에는 약을 먹고 꼭 자면 괜찮아질 거예요.

☐ **연고를 바르다** 연고: 피부의 상처를 치료하려고 사용하는 것.

빨리 나으려면 이 연고를 하루에 두 번씩 꼭 바르세요.

☐ **반창고를 붙이다** 반창고: 상처 난 곳에 붙이려고 사용하는 테이프.

상처 난 곳에 반창고를 붙이고 나서 만지지 마세요.



☐ **파스를 붙이다** 파스: 타박상, 근육통 등을 덜 아프게 하려고 붙이는 것.

허리가 너무 아파서 파스를 붙였어요.



☐ **붕대를 감다** 상처에 깨끗한 천을 두르다.

테니스를 치다가 조금 다쳐서 오른쪽 팔에 붕대를 감았어요.

☐ **깁스를 하다** 깁스: 단단하게 만든 붕대로, 아픈 곳을 움직이지 않게 하여 보호하기 위해서 감는 것.

다리를 다쳐서 한 달 동안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해요.

☐ **물리 치료를 받다** 물리 치료: 자연의 힘이나 물리적 작용을 빌려서 치료를 하는 방법.

깁스를 풀고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리 치료를 받고 있어요.

☐ **수술을 받다** 수술: 병을 고치기 위해 몸의 한 부분을 찢고 자르거나 붙이고 꿰매는 일.

어렸을 때 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12-2

- ☐ **소화가 안 되다** 소화: 먹은 음식이 몸에 필요한 성분으로 흡수되기 쉽게 바꾸는 일.

아침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소화가 안 돼요.

- ☐ **코가 막히다** 코안의 길에 공기가 통하지 못하게 되다.

코가 막혀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 ☐ **기침을/재채기를 하다** 기침: 감기의 증상으로 갑자기 거친 숨소리를 내며 나오는 것.

재채기: 숨을 짧은 시간 동안 몇 차례 나누어 들이마신 뒤 이를 큰 소리와 함께 한꺼번에 내쉬는 일.

옷을 얇게 입어서 그런지 계속 기침을/재채기를 해요.

- ☐ **눈이 충혈되다** 충혈되다: 외부의 자극으로 몸의 일정한 부분에 보통 때보다 피가 많이 모이다.

요즘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서 눈이 충혈됐어요.

- ☐ **쥐가 나다** 몸의 어느 한 부분의 근육이 수축되어 그 기능을 잠시 동안 잃는 일이 생기다.

너무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그런지 다리에 쥐가 났어요.

- ☐ **두드러기가 나다** 두드러기: 약이나 음식을 잘못 먹거나 환경의 변화로 생기는 피부병의 하나.

저는 땅콩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요.

☐ **어지럽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도는 것 같아 정신이 안정되지 못하다.
지금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워요.

☐ **눈이 따갑다** 눈이 날카로운 것에 찔리는 것처럼 아프다.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 눈이 너무 따가워요.

☐ **잇몸이 붓다** 이(치아) 주위에 있는 분홍색의 살들이 부풀어 오른다.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잇몸이 부었어요.

☐ **식은땀이 나다** 식은땀: 몸이 아파서 덥지 않지만 계속 나는 땀.
너무 아파서 식은땀이 계속 나요.

☐ **육신거리다** 머리카 상처 등이 자꾸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 오다.
의사: 몸살인 것 같은데 증상이 어때요?
환자: 팔하고 다리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육신거려요.

☐ **입안이 헐다** 입안이 상처로 짓무르다.
계속 밤을 새워서 그런지 입안이 헐었어요.

☐ **피부가 가렵다** 피부가 자꾸 긁고 싶은 느낌이 들다.
저는 항상 땅콩을 먹으면 피부가 가려워요.

□ **설사하다** 배탈 등으로 똥은 변을 보는 것.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설사하는 것 같아요.

13 생활비가 많이 절약되더라고요

13-1

☐ **식비** 먹는 것에 쓰는 돈.

직접 요리를 해서 먹으면 식비를 줄일 수가 있거든.

☐ **의류 구입비, 화장품 구입비** 옷, 화장품을 사는 것에 쓰는 돈.

가: 어디에 돈을 많이 써요?

나: 저는 옷과 화장품을 좋아해서 의류 구입비와 화장품 구입비에 돈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 **교통비** 지하철, 버스 등 탈 것을 타는 것에 쓰는 돈.

한국은 유럽보다 교통비가 싼 편이에요.

☐ **문화생활비** 영화, 연극, 뮤지컬, 전시회 등의 활동을 즐기는 것에 쓰는 돈.

저는 전시회나 연주회를 좋아해서 문화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 **통신비** 핸드폰 등 다른 사람과 연락할 때 사용하는 물건에 쓰는 돈.

남자 친구하고 매일 통화해서 그런지 이번 달에 통신비가 엄청 나왔어.

13-2

- ☐ **계획 없이 돈을 쓰다** 앞으로 쓸 돈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다.

계획 없이 돈을 쓰니까 생활비가 모자라요.

- ☐ **할인 제품을 구매하다** 원래의 가격보다 싸게 파는 물건을 사다.

잘 알아보면 저렴하게 할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 ☐ **저금을 하다** 돈을 은행의 계좌 등에 모아 두다.

내년에 유학을 가려고 열심히 저금을 하고 있어요.

- ☐ **돈이나 물건 등을 아껴 쓰다** 아껴 쓰다: 깊이 생각하여 사용하다.

우리 어머니는 돈이나 물건 등을 항상 아껴 쓰세요.

- ☐ **가격을 비교한 후 구입하다** 서로의 가격을 살펴보고 고민한 다음에 사다.

물건을 사기 전에 인터넷으로 가격을 비교한 후 구입하면 좋아요.

- ☐ **유행하는 상품을 사다** 유행하다: 어떤 생각, 행동, 물건이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많이 사용되다.

제 친구는 항상 유행하는 상품을 사더라고요.

- ☐ **가계부를 쓰다** 가계부: 번 돈과 쓴 돈을 적는 노트.

가: 항상 생활비가 부족해서 걱정이예요.

나: 그래요? 그럼 가계부를 쓰는 습관을 가져 보는 게 어때요?

-
- ☐ **계획을 세워 돈을 쓰다** 계획을 세우다: 앞으로 할 일의 과정, 방법 등을 생각하고 결정하다.

돈을 모으려면 계획을 세워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해요.

- ☐ **필요한 것만 사다** 꼭 있어야 하는 것만 사고 다른 것은 사지 않다.

오늘은 정말 필요한 것만 살 거야.

- ☐ **충동구매를 하다** 충동구매: 물건을 구경하거나 광고를 보다가 갑자기 사고 싶어져서 사는 것.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터넷에서 꼭 충동구매를 하게 돼요.

- ☐ **신용 카드를 쓰지 않다** 신용 카드: 물건을 살 때 돈을 바로 내지 않고 은행이 보증하여 일정 기간 뒤에 돈을 낼 수 있는 카드.

저는 신용 카드를 쓰지 않으려고 해요. 신용 카드가 있으면 생각보다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더라고요.

14 한국으로 여행을 한번 가 보지 그래요?

14-1

- ☐ **성적이 떨어지다** 성적: 배운 내용, 태도 등을 평가한 결과.
이번에는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 ☐ **자신감이 부족하다**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충분하지 않다.
저 선수는 잘하는데 자신감이 부족해서 항상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 ☐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다** 어울리다: 함께 사귀어 잘 지내다.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편이에요.

- ☐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다** 실력: 실제로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요.

- ☐ **인내심이 부족하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마음이 충분하지 않다.
저는 인내심이 부족해서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해요.

- ☐ **남자/여자 친구와 성격이 안 맞다** 성격이 안 맞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성질이 어울리지 않고 어긋나다.
남자/여자 친구와 성격이 안 맞아서 자주 싸우는 편이에요.

- ☐ **취업하기가 힘들다** 직업을 잡아 직장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요즘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해서 걱정돼요.

☐ **일이 잘되지 않다** 좋은 결과가 생기거나 만들어지지 않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이 잘되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 **성격이 급해서 실수가 많다** 성격이 급하다: 타고난 성질이 모든 것을 빨리 해야 하는 편이다.

저는 성격이 급해서 뭐든 빨리하지만 실수가 많은 편이에요.

☐ **돈을 모으기 어렵다** 모으다: 하나로 합하다.

충동구매를 자주 하는 편이어서 돈을 모으기가 어려워요.

☐ **불면증이 심하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증상이 지나치다.

가: 요즘에도 밤에 잘 자지 못해요?

나: 네. 계속 불면증이 심해서 병원에 한번 가 보려고요.

☐ **회사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다** 회사 생활에 적응하다: 회사 생활에 익숙해지다.

최근에 회사를 옮겼더니 회사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요.

14-2

☐ **의논하다**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다.

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 그래요? 먼저 부모님과 의논해 보는 게 어때요?

☐ **도전하다** 어려운 일에 맞서서 해 보다.

올해에는 꼭 번지점프에 도전하려고요.

☐ **잊어버리다** 한번 알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다.

이 카드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더니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 **꾸준히 노력하다** 계속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 **조언을 구하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 주기를 부탁하다.

가: 이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해 보고 싶어요.

나: 그래요? 이 회사에 다니는 선배에게 조언을 구해 보면 어때요?

☐ **우선순위를 정하다** 어떤 것을 먼저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순서를 정하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정해 봐.

☐ **단순하게 생각하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생각하다.

가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 **다른 데 관심을 가지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다른 데 관심을 가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솔직하게 이야기하다** 거짓 없이 바르게 이야기하다.

범인은 경찰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만들다.

자유 여행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해요.

문법

1과	열심히 배우면서 일하고 있어요	60
2과	테니스 칠 줄 알아요?	62
3과	어디에서 만날까?	64
4과	필요한 물건은 같이 사러 가자	66
5과	뉴욕에 가 본 적이 있어요?	68
6과	입어 봐도 되지요?	70
7과	본선에서 상을 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72
8과	한국어로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들을 찾아보는 게 어때?	74
9과	면을 살짝 볶으면 훨씬 더 맛있거든	76
10과	사람마다 다르지만 친해지기 전까지는 반말을 잘 안 해요	78
11과	배우들이 연기를 정말 잘한다고 해요	80
12과	양치질을 못 할 정도로 손목이 아파	82
13과	생활비가 많이 절약되더라고요	84
14과	한국으로 여행을 한번 가 보지 그래요?	86

01 열심히 배우면서 일하고 있어요

1-1 -으면서/-면서

- 가: 어제 친구 만나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나: 네. 친구하고 밥 먹으면서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했어요.
- 가: 요즘 어떻게 지내요?
나: 잘 지내요.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는 봉사 활동도 해요.
- 가: 저 가수는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이 멋있네요.
나: 네. 그래서 요즘 인기가 많아요.
- 가: 이번에 바꾼 핸드폰은 어때요?
나: 가벼우면서 기능도 다양해서 정말 편해요.
- 영화가 슬퍼서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울었어요.

‘-으면서/-면서’는 동사와 형용사에 붙여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동사와 함께 쓸 때에는 두 동사가 동시에 이루어짐을 나타내며 형용사와 함께 쓸 때에는 주어가 두 형용사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형용사의 경우 구어보다는 문어 상황에서 이 문법을 사용할 때가 많다. 받침이 있는 동사-형용사 뒤에는 ‘-으면서’가 붙고 받침이 없는 동사-형용사 뒤에는 ‘-면서’가 붙는다.

‘-으면서/-면서’ is used after a verb or adjective and is used when two actions occur at the same time. When used with a verb, it shows that two actions occur at the same time. When used with an adjective, it shows the two characteristics coexist. This grammatical form is used more often with an adjective in spoken situations rather than written contexts. ‘-으면서’ is used after a verb stem ending in a consonant and ‘-면서’ is used after a verb stem ending in a vowel.

1-2 -을까/-ㄹ까 하다

- 가: 리나 씨,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나: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책을 좀 읽을까 해요.
- 가: 해리 씨는 한국어 공부가 끝나면 뭘 하고 싶어요?
나: 저는 한국 여행사에 취직할까 해요.
- 가: 전 지금 산책하러 갈까 해요. 같이 갈래요?
나: 미안하지만, 지금은 좀 바빠요.
- 가: 오늘 저녁은 피자를 먹을까 하는데, 어때요?
나: 좋아요. 맛있겠네요.
- 내년에는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유학을 갈까 해요.

‘-을까/-ㄹ까 하다’는 동사에 붙어 어떤 일을 하기로 확실하게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생각이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받침이 있는 동사에는 ‘-을까 하다’가 붙고 받침이 없는 동사에는 ‘-ㄹ까 하다’가 붙는다. 이와 비교하여 확실한 계획 혹은 계획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할 경우에는 주로 ‘-을/-ㄹ 것이다’를 사용하고 화자의 의도를 나타낼 때는 ‘-으려고/-려고 하다’를 사용한다.

‘-을까/-ㄹ까 하다’ is used after a verb to show that it is not clear what you decide to do, but indicate that you are willing to do so. ‘-을까 하다’ is used after a verb stem ending in a consonant and ‘-ㄹ까 하다’ is used after a verb stem ending in a vowel. In comparison, if you are talking about a definite plan or a planned future work, ‘-을/-ㄹ 것이다’ is used while ‘-으려고/-려고 하다’ is used to indicate the intent of the speaker.

02 테니스 칠 줄 알아요?

2-1 -을/-ㄴ 줄 알다/모르다

- 가: 한자를 읽을 줄 알아요?
나: 네. 어렸을 때 배웠어요.
- 가: 피아노를 칠 줄 알아요?
나: 아니요. 칠 줄 몰라요.
- 가: 유미 씨, 수영할 줄 알아요?
나: 아니요. 저는 물을 무서워해요.
- 가: 케빈 씨는 낚시할 줄 알아요?
나: 네. 이번 주말에 낚시하러 갈까 해요.
- 떡볶이를 만들 줄 알아요.

‘-을/-ㄴ 줄 알다/모르다’는 동사에 붙여 어떤 행동을 하는 방법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또한 그 행동을 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받침이 있는 동사에는 ‘-을 줄 알다, -을 줄 모르다’가 붙고 받침이 없는 동사에는 ‘-ㄴ 줄 알다, -ㄴ 줄 모르다’가 붙는다.

‘-을/-ㄴ 줄 알다/모르다’ is attached to a verb and expresses the meaning ‘to know/not know how to do’. This pattern indicates one’s ability to do something. ‘-을 줄 알다, -을 줄 모르다’ is added to the stem of an action verb ending in a consonant and ‘-ㄴ 줄 알다, -ㄴ 줄 모르다’ is attached to the stem of an action verb ending in a vowel.

2-2 -고 나면

- 가: 매일 두 시간씩이나 운동을 해요?
나: 네. 땀을 흘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려서 좋아요.
- 가: 감기에 걸려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나: 약을 먹고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 가: 전 졸업하고 나면 1년 동안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싶어요.
나: 우와, 멋지네요. 저도 세계 여행을 하는 게 꿈이에요.
- 가: 이번 주말에도 자전거를 타러 갈 거예요?
나: 네. 저는 자전거를 타고 나면 기분 전환이 돼요.
- 이 책을 읽고 나면 삶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고 나면’은 동사에 붙여 ‘어떤 일이나 동작이 끝나면’의 뜻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고 나면’ is attached to a verb stem and can be used to indicate ‘when/after a certain work or action has ended’.

03 어디에서 만날까?

3-1 반말(1)

- 가: 늦어서 미안해. 약속 시간을 착각했어.
나: 괜찮아. 나도 방금 왔어.
- 가: 주말에 이사할 때 내가 좀 도와줄까?
나: 시간 있어? 도와주면 정말 고맙지.
- 가: 나한테 콘서트 표가 두 장 있는데 같이 갈래?
나: 누구 공연인데?
- 가: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나: 나는 주말에 등산할까 해. 너도 갈래?
- 가: 유미야, 시간 있어? 같이 쇼핑할까?
나: 미안해. 내일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돼.

반말인 ‘-아/-어/-여, -을까/-까, -을래/-래, -을게/-게, -는데/-는데/-ㄴ데, -지’는 ‘-아요/-어요/-여요, -을까요/-까요, -을래요/-래요, -을게요/-게요, -는데요/-는데요/-ㄴ데요, -지요’에서 ‘요’를 뺀 것으로 친구와 같이 아주 친한 사이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사용한다. 이 반말 표현은 주로 구어에서 사용되고 친하거나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반말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Informal non-polite (or intimate) speech styles such as ‘-아/-어/-여, -을까/-까, -을래/-래, -을게/-게, -는데/-는데/-ㄴ데, -지’ are expressions of ‘-아요/-어요/-여요, -을까요/-까요, -을래요/-래요, -을게요/-게요, -는데요/-는데요/-ㄴ데요, -지요’ without the ‘요’, and used when talking to one’s close friend or juniors. These expressions are often used in spoken contexts. If the other person does not want to use informal/intimate speech styles, you should avoid using it although the person may be a close friend or someone younger than you.

3-2 아무 ...이나/나

- 가: 내일 약속, 3시 말고 4시는 어때? 3시는 좀 애매해.
나: 그래? 나는 아무 때나 다 괜찮아. 그럼 4시에 봐.
- 가: 여기 책상이 두 개 있는데 네가 창가 쪽에 있는 걸 사용할래?
나: 아무 데나 네가 좋은 곳으로 먼저 정해. 나는 상관없어.
- 가: 우리 뭐 먹을까?
나: 난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 가: 해리는 아무 운동이나 잘하는 것 같아.
나: 맞아. 못하는 운동이 없어. 정말 부러워.
- 이곳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이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 ...이나/나’는 어떠한 것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가리킬 때 사용한다. 뒤에 부정 표현이 오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 장소, 시간이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이나’가 붙고, 받침이 없는 명사에는 ‘나’가 붙는다. ‘아무거나, 아무 데나, 아무 때나’와 같은 형태로 자주 쓰이며 사람을 이르는 경우는 ‘아무나’로 쓰인다.

‘아무 ...이나/나’ is used when not indicating a particular thing or person. A negative expression indicates that no person, object, place, or time is to be determined. ‘이나’ is used after a noun ending in a consonant and ‘나’ is used after a noun ending in a vowel. The forms ‘아무거나, 아무 데나, 아무 때나’ is often used and ‘아무나’ is used when indicating a person.

04 필요한 물건은 같이 사러 가자

4-1 ...에다(가) ...도/까지

- 가: 집 안 청소에다가 빨래까지 할 일이 정말 많아서 힘들어요.
나: 집안일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 가: 한국어에다가 베트남어도 잘하는 걸 보면 리나 씨는
언어 공부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아니에요. 한국어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 가: 마크 씨, 혹시 오늘 시간 있어요?
나: 미안해요. 오늘은 아르바이트에다가 약속도 있어서 바쁠 것
같아요.
- 가: 가방에 두꺼운 책에다가 노트북까지 넣었더니 너무 무겁네.
나: 내가 좀 들어 줄까?
- 가: 과제에다가 발표 준비까지 해야 돼서 요즘 정말 정신이 없네요.

‘...에다(가) ...도/까지’는 명사 뒤에 붙여 앞의 명사에 뒤의 명사가 더해짐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보통 구어에서 많이 사용된다. ‘에다가’는 ‘에다’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에다(가) ...도/까지’ is used after a noun to indicate an additional noun added to the preceding noun. The pattern is used in spoken contexts. ‘에다가’ is often used as ‘에다’.

4-2 반말(2)

- 가: 재훈아, 방 좀 치워라.
나: 네. 금방 정리할게요, 엄마.
- 가: 음식 값은 각자 계산하자.
나: 아니야.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내가 한턱낼게.
- 가: 게임 그만하고 얼른 밥 먹어라.
나: 아빠, 잠시만요.
- 가: 수업 끝나고 같이 도서관에 갈까?
나: 좋아. 점심도 같이 먹고 가자.
- 우리 지금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10년 후에 꼭 다시 만나자.

‘-아(라)/-어(라)/-여(라)’는 동사 뒤에 붙여 친한 친구 사이나 나이 어린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사용하는 반말이고 ‘-자’는 동사 뒤에 붙여 친한 친구 사이나 나이 어린 사람에게 같이 할 것을 제안하거나 요청할 때 사용하는 반말이다. 명령형은 동사 어간의 마지막 모음 ‘ㅏ’, ‘ㅑ’ 뒤에는 ‘-아라’가 붙고 그 외 모음 뒤에는 ‘-어라’가 붙는다. ‘하다’로 끝나는 경우에는 ‘-여라’가 붙어서 ‘하여라’가 되고 이것이 줄어들어 ‘해라’가 된다. 청유형은 동사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자’가 붙는다. 이 중에서 ‘-아(라)/-어(라)/-여(라)’는 다른 반말과는 달리 친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뒤편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Non-polite (or intimate) styles of speech such as ‘-아(라)/-어(라)/-여(라)’ is attached after a verb stem when making a command to a close friend or your junior while ‘-자’ is attached after a verb stem when making a suggestion or asking a close friend or junior to do something. ‘-아라’ is used after vowels ‘ㅏ’, ‘ㅑ’ of the verb stem to indicate imperative forms while ‘-어라’ is used after other vowels. ‘-여라’ is attached to ‘하다’ which forms ‘하여라’ and can be modified to ‘해라’. The form ‘-자’ is used for propositives regardless of the verb ending. ‘-아(라)/-어(라)/-여(라)’ is the only form of non-polite (or intimate) speech that cannot be used to someone older than you no matter how close or intimate you are.

05 뉴욕에 가 본 적이 있어요?

5-1 -은/-ㄴ 적이 있다/없다

- 가: 만나 씨는 김치를 먹은 적이 있어요?
나: 네. 한국으로 여행 갔을 때 먹어 봤어요.
- 가: 동생하고 정말 사이가 좋네요.
나: 네. 저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 가: 한복을 입은 적이 있어요?
나: 네. 작년에 세종학당 축제에서 한번 입어 봤어요.
- 가: 밤을 새워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나: 네. 지난번 한국어 시험 전날에 밤을 새웠어요.
- 저는 아직 혼자 여행을 가 본 적이 없어요.

‘-은/-ㄴ 적이 있다/없다’는 동사에 붙여 과거의 특별한 경험을 말하거나 그런 경험이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받침이 있는 동사에는 ‘-은 적이 있다/없다’가 붙고, 받침이 없는 동사에는 ‘-ㄴ 적이 있다/없다’가 붙는다. 한편 ‘시도’의 뜻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아/-어 본 적이 있다/없다’의 형태로 많이 쓰인다.

‘-은/-ㄴ 적이 있다/없다’ is attached to a verb and indicates the existence or lack of one’s past experience. ‘-은 적이 있다/없다’ is used when the verb stem ends in a consonant while ‘-ㄴ 적이 있다/없다’ is used when the verb stem ends in a vowel. ‘-아/-어 본 적이 있다/없다’ is used when emphasizing the meaning of ‘trial’.

5-2 -아서/-어서/-여서 그런지

- 가: 제주도에 가 본 적이 있어요?
나: 네. 가 본 적이 있어요.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 같았어요.
- 가: 놀이공원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 가: 맨디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나: 일 때문에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런지 계속 피곤하네.
- 가: 아직 안 자?
나: 아까 커피를 마셔서 그런지 잠이 잘 안 오네.
- 런던은 교통이 편리해서 그런지 자유 여행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서/-어서/-여서 그런지’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여 앞에 오는 절이 뒤에 오는 절의 확실하지 않은 이유나 원인이라고 추측할 때 사용한다. 모음 ‘ㅏ’, ‘ㅑ’ 뒤에는 ‘-아서 그런지’가 붙고, 그 외 모음 뒤에는 ‘-어서 그런지’가 붙는다. ‘하다’로 끝나는 경우에는 ‘-여서 그런지’가 붙어 ‘하여서 그런지’가 되고 이것이 줄어들어 ‘해서 그런지’가 된다. 또한 받침이 없이 모음 ‘ㅏ’, ‘ㅑ’로 끝나는 경우에 ‘-아서/-어서 그런지’가 붙으면 동음 탈락이 일어나고 ‘ㅡ’로 끝나는 경우에는 ‘ㅡ’ 탈락이 일어난다. ‘-아서/-어서/-여서 그런지’는 시제 표현이 붙지 않는다. 그리고 뒤 문장에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사용할 수 없다.

‘-아서 /-어서/-여서 그런지’ is attached to a verb or adjective and used to indicate that the preceding clause is the uncertain cause or reason for the second clause. ‘-아서 그런지’ comes after vowels ‘ㅏ’, ‘ㅑ’, and the form ‘-어서 그런지’ is used after the remaining vowels. After endings such as ‘하다’, ‘-아서 그런지’ is used which becomes ‘하여서 그런지’ and further contracted to ‘해서 그런지’. When the form ‘-아서/-어서 그런지’ is attached to verb stems ending in vowels ‘ㅏ’, ‘ㅑ’, two repeated vowels are contracted to one. When the verb stem ends in vowel ‘ㅡ’, the vowel ‘ㅡ’ is dropped. ‘-아서/-어서/-여서 그런지’ is not attached to tense expressions. The following sentences thereafter cannot take the form of imperatives or propositives.

06 입어 봐도 되지요?

6-1 -아도/-어도/-여도 되다

- 가: 저기요. 이 옷 한번 입어 봐도 돼요?
나: 네. 저기 탈의실에서 입어 보세요.
- 가: 여기에 주차해도 돼요?
나: 여기는 식당 입구라서요. 건물 뒤에 주차해 주세요.
- 가: 유진 씨, 주말에 집에 놀러 가도 돼요?
나: 물론이죠. 몇 시에 올래요?
- 가: 이 책 좀 읽어도 돼?
나: 응. 너 먼저 봐.
- 한국미술관에서는 전시실 내에서 사진을 찍어도 됩니다.

‘-아도/-어도/-여도 되다’는 동사 뒤에 붙여 어떤 행위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요청이나 허락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모음 ‘ㅏ’, ‘ㅑ’ 뒤에는 ‘-아도 되다’가 붙고, 그 외 모음 뒤에는 ‘-어도 되다’가 붙는다. ‘하다’로 끝나는 경우에는 ‘-여도 되다’가 붙어 ‘하여도 되다’가 되고 이것이 줄어들어 ‘해도 되다’가 된다. 요청이나 허락을 하지 않음을 나타낼 때는 ‘-(으)면 안 되다’를 쓴다.

‘-아도/-어도/-해도 되다’ is attached to a verb and is used to give permission or to ask for permission to do something. ‘-아도 되다’ comes after vowels ‘ㅏ’, ‘ㅑ’, and the form ‘-어도 되다’ is used after the remaining vowels. After endings such as ‘하다’, ‘-여도 되다’ is used which becomes ‘하여도 되다’ and further contracted to ‘해도 되다’. ‘-(으)면 안 되다’ is used to indicate not giving permission.

6-2 -으려고(요)/-려고(요)

- 가: 이 옷은 언제 입을 거야?
나: 조금 더 추워지면 입으려고.
- 가: 손님, 어떻게 오셨어요?
나: 어제 여기에서 가방을 샀는데 지퍼가 안 열려서 교환을 하려고요.
- 가: 왜 이렇게 빵을 많이 샀어요?
나: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려고요.
- 가: 이번 휴가 때 뭐 할 거야?
나: 친구하고 한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 집이 회사에서 너무 멀어서 이사를 하려고요.

‘-으려고(요)/-려고(요)’는 동사 뒤에 붙여 어떤 행위의 의도나 목적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받침이 있는 동사에는 ‘-으려고(요)’가 붙고 받침이 없는 동사와 ‘ㄹ’ 받침의 동사에는 ‘-려고(요)’가 붙는다.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는 같아야 하고 주어는 앞 문장에 한 번만 나타난다.

‘-으려고(요)/-려고(요)’ is attached to the stem of an action verb and used to indicate an intention or plan. ‘-으려고(요)’ is attached to an action verb ending in a consonant and ‘-려고(요)’ is attached to an action verb ending in a vowel and verbs ending with ‘ㄹ’. The subject of the two clauses need to be identical and used only once in the first clause.

07 본선에서 상을 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7-1 -았으면/-었으면/-였으면 좋겠다

- 가: 이번 대회에서 상을 탔으면 좋겠어요.
나: 걱정 마세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 가: 저도 할 수 있는 한국 요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찾아보세요.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거예요.
- 가: 이 가방이 요즘 인기가 많아요.
나: 그래요? 예쁜데 크기가 좀 더 작았으면 좋겠어요.
- 가: 곧 새해네요. 유진 씨는 새해 소원이 있어요?
나: 가족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 도심 교통 정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았으면/-었으면/-였으면 좋겠다’는 동사와 형용사 뒤에 붙여 화자의 희망이나 바람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좀 더 완곡하게 자신의 바람을 표현할 때에는 ‘좋겠다’ 대신 ‘하다’를 사용할 수 있다.

‘-았으면/-었으면/-였으면 좋겠다’ is attached to a verb or adjective and expresses one’s wish or desire. In place of ‘좋겠다’, the expression ‘하다’ can be used to reword one’s expression of desire.

7-2 -기는 하다

- 가: 회사 생활은 괜찮아요?
나: 네. 지금은 좀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기는 해요.
- 가: 반 친구들과 수료식 공연 준비는 잘하고 있어요?
나: 아직 연습을 몇 번 못 해서 실수를 좀 하기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 가: 새로 이사한 집은 어때요?
나: 방이 좀 작기는 하지만 회사가 가까워서 편해요.
- 가: 지난번에 넘어져서 다친 곳은 어때요?
나: 아직 좀 아프기는 하지만 많이 괜찮아졌어요.
- 연구 초기에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무인 자동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는 하다’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여 상대방의 말을 부분적으로 인정할 때 사용한다. 대상에 대한 서술의 일부는 긍정하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나 의견이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앞에 서술한 내용에 대해 긍정하지만 화자가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만’과 결합하여 ‘-기는 하지만’의 형태로도 사용이 된다. ‘-기는 하다’의 시제 사용은 ‘하다’에 결합하여 사용한다.

‘-기는 하다’ is attached to a verb or adjective and used to partially acknowledge the words of the other party. This pattern is used to partially acknowledge the words of the other party but also indicates that there are different ideas or opinions. ‘-지만’ is attached to form ‘-기는 하지만’ which shows that although there is partial acknowledgement, the speaker indicates that he or she has a different opinion. ‘-기는 하다’ is used with ‘하다’ for tense expressions.

08 한국어로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들을 찾아보는 게 어때?

8-1 -을지/-르지 (알다/모르다)

- 가: 와! 정말 맛있겠네요. 케빈 씨가 직접 만든 거예요?
나: 네.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맨디 씨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 가: 대학에 가면 뭘 전공할 생각이예요?
나: 아직 뭘 전공할지 모르겠어요. 제 적성을 모르겠어서요.
- 가: 오늘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 가: 리나가 이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할지 모르겠네.
나: 리나도 분명 좋아할 거야.
- 10년 후 친구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정말 알고 싶어요.

‘-을지/-르지’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여 확실하지 않은 의문이 있는 상태를 뒤의 사실, 판단과 연결하여 말할 때 사용한다. ‘-을지/-르지’ 뒤에는 ‘알다, 모르다’ 이외에도 ‘궁금하다, 알리다’와 같은 표현들도 사용할 수 있다.

‘-을지/-르지’ is attached to a verb or adjective and is used to connect the condition of uncertainty with phrases of fact or judgement. Expressions such as ‘알다, 모르다’ or ‘궁금하다, 알리다’ can be used after ‘-을지/-르지.’

8-2 -는/-은/-ㄴ 게 어때(요)?

- 가: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회사 분위기가 저랑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나: 그럼 방학 때 그 회사 인턴십에 참가해 보는 게 어때요?
- 가: 요즘 중요한 일정을 자꾸 잊어버려서 고민이야.
나: 그래? 그럼 핸드폰 앱을 사용하는 게 어때?
미리 일정을 알려 줘서 정말 좋아.
- 가: 이번 휴가 때 입으려고 하는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 여름이니까 밝은 게 어때요? 준 씨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 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나: 학교에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해 보는 게 어때요?
- 가: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 그럼, 먼저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해 보는 게 어때요?

‘-는/-은/-ㄴ 게 어때(요)?’는 동사와 형용사 뒤에 붙여 동작과 상태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제안할 때 사용한다. 제안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화자가 현재 동작과 상태에 대해 말하는 것이므로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한다.

‘-는/-은/-ㄴ 게 어때(요)?’ is attached to a verb or adjective and is used to ask opinions or suggest comments about the action and status of the verb or adjective. When it is used to suggest, the speaker will explain about his/her present action or state. Only present tense marker can be used.

09 면을 살짝 볶으면 훨씬 더 맛있거든

9-1 -거든(요)

- 가: 제니 씨는 비빔밥을 자주 먹네요.
나: 네. 저는 채소를 좋아하거든요.
- 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나: 응. 내일부터 휴가거든.
- 가: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남겼어?
나: 요즘 감기에 걸려서 입맛이 없거든.
- 가: 오늘 안나 씨가 학교에 안 왔네요.
나: 안나 씨는 며칠 동안 학교에 못 와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 가: 주말에는 지하철을 이용하세요. 길이 많이 막히거든요.

‘-거든(요)’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여 어떤 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한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할 때 쓴다. ‘-거든요’는 새로운 화제를 도입할 때에 사용되기도 한다.

‘-거든(요)’ is attached to a verb or adjective and explains the reason for what has happened. This is used when there is an assumption that I think that the hearer will not know what is going on. ‘-거든요’ is also used when changing the topic.

9-2 -고 나서

- 가: 어떻게 하면 국수를 맛있게 삶을 수 있어요?
나: 면을 다 삶고 나서 바로 찬물에 씻으세요.
- 가: 이삿짐 정리 끝내고 나서 식사를 합시다.
나: 좋아요. 우리 빨리 끝내요.
- 가: 우리 언제 통화할까?
나: 미안. 내가 과제 하고 나서 바로 전화할게. 좀 기다려 줘.
- 가: 언제 회의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나: 너무 졸린데 먼저 커피를 마시고 나서 시작해요.
- 음식을 먹고 나서 이를 닦지 않으면 충치가 생길 수 있어요.

‘-고 나서’는 동사 뒤에 붙어 어떤 사건이나 행동 뒤에 연이어 다른 사건이나 행동이 일어남을 나타낸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에는 ‘그리고 나서’가 쓰인다.

‘-고 나서’ is attached to a verb and is used to indicate that any incident or action is followed by a different event or actions. ‘그리고 나서’ is used for connecting sentences.

10 사람마다 다르지만 친해지기 전까지는 반말을 잘 안 해요

10-1 ...마다

- 가: 한국에서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나: 그래요? 우리는 모두 이름을 부르는데 정말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네요.
- 가: 와, 정말 잘 그렸네요. 지혜 씨는 그림 그리는 게 취미예요?
나: 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그려요.
- 가: 이 약은 언제 먹으면 돼요?
나: 여섯 시간마다 드세요.
- 가: 현수 씨,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 것 같아요.
나: 정말요? 날마다 연습했는데 뿌듯하네요.
- 사람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달라요.

‘마다’는 명사에 붙여 하나하나 모두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그 상황이 되풀이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는 ‘매일, 매달, 매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또한 ‘마다’는 명사와 결합하지만 동사와 결합할 때에는 ‘-을/-ㄴ 때마다’의 형태로 사용한다. 받침이 있는 동사에는 ‘-을 때마다’, 받침이 없는 동사에는 ‘-ㄴ 때마다’가 붙는다.

‘마다’ is attached to a noun to indicate that all occurrences are in a similar situation or that the situation recurs.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can be used as ‘매일, 매달, 매년’. ‘마다’ can be attached to a noun but when attached to a verb, it takes the form of ‘-을/-ㄴ 때마다’. ‘-을 때마다’ is used after a consonant-ending verb stem. After a vowel-ending verb stem, ‘-ㄴ 때마다’ is attached.

10-2 -을/-ㄴ 뻔하다

- 가: 발리에서 식당에 갔는데 손 씻는 물을 마실 뻔했어요.
나: 케빈 씨도 그랬어요? 우리 나라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 가: 어제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칠 뻔했어요.
나: 정말요? 놀랐겠어요. 그래도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
- 가: 바다에서 놀다가 잘못해서 물에 빠질 뻔했어요.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 가: 오늘 지각해서 시험을 못 볼 뻔했어.
나: 그래도 시험을 봐서 다행이야.
-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 때문에 깜짝 놀라서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을/-ㄴ 뻔하다’는 동사에 붙여 어떤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을 때 사용한다. ㄴ 이외의 받침이 있는 동사에는 ‘-을 뻔하다’가 붙고 ㄹ 받침이나 받침이 없는 동사에는 ‘-ㄴ 뻔하다’가 붙는다.

‘-을/-ㄴ 뻔하다’ is attached to a verb and used to indicate that a certain event is very likely to happen, but when the situation did not actually happen. ‘-을 뻔하다’ is used after a verb stem ending in a consonant except for ㄴ, and ‘-ㄴ 뻔하다’ is attached after a vowel-ending verb or a verb ending in ㄴ.

11 배우들이 연기를 정말 잘한다고 해요

11-1 -을/-ㄴ 테니(까)

- 가: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요?
나: 좋아요. 주말에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내가 미리 예매할게요.
- 가: 피곤해 보이네요. 마무리는 내가 할 테니까 오늘은 일찍 가서 쉬세요.
나: 고마워요. 대신 내일은 일찍 나올게요.
- 가: 과제를 아직 다 못해서 걱정이야.
나: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 가: 우리 집안일을 어떻게 나눠서 하면 좋을까?
나: 내가 설거지를 할 테니까 너는 빨래를 하면 어때?
- 가: 산 정상에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질 테니까 두꺼운 옷을 꼭 챙겨.

‘-을/-ㄴ 테니(까)’는 동사와 형용사에 붙여 확신을 가진 화자의 추측이나 화자의 의지가 이유가 될 때 사용한다. 명백하고 확실한 상황이나 사실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ㄴ 이외의 받침이 있는 동사와 형용사에는 ‘-을 테니(까)’가 붙고 ㄹ 받침이나 받침이 없는 동사와 형용사에는 ‘-ㄴ 테니(까)’가 붙는다.

‘-을/-ㄴ 테니(까)’ is attached to a verb or adjective and is used to indicate when there is a reason for guessing or the speaker's willingness for certainty. It is not used for obvious situations or facts. ‘-을 테니(까)’ is used for consonant-ending verb stems except for verbs or adjectives ending in ㄹ, and ‘-ㄴ 테니(까)’ is used for vowel-ending verb stems or a verb/adjective ending in ㄴ.

11-2 간접 인용(1)

- 가: 이 뮤지컬 어떨까요? 재미있을까요?
나: 저도 안 봤는데 작품성도 뛰어나고 배우들도 연기를 잘한다고 해요.
- 가: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과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벌써 비행기 표가 없다고 해요.
나: 저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표가 없어서 포기했어요.
- 가: 어떤 영화 볼까?
나: 이 영화 어때? 이 영화는 줄거리가 흥미롭고 볼거리도 풍부하다고 해.
- 가: 유진 씨는 그림 그리는 게 취미라고 해요.
나: 그래요? 저도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차분해져서 좋아요.
-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한국의 관광지지는 제주도라고 해요.

‘-는다고/-나다고 하다, -다고 하다, ...이라고/...라고 하다’는 동사와 형용사에 붙여 듣거나 읽은 진술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사용한다. 동사로 끝나는 현재 시제의 문장에는 받침이 있으면 ‘-는다고 하다’, 받침이 없으면 ‘-나다고 하다’가 붙고, 형용사로 끝나는 현재 시제의 문장에는 받침 유무에 상관없이 ‘-다고 하다’가 붙는다. 명사로 끝나는 현재 시제의 문장에는 받침이 있으면 ‘...이라고 하다’, 받침이 없으면 ‘...라고 하다’가 붙는다.

‘-는다고/-나다고 하다, -다고 하다, ...이라고/...라고 하다’ is attached to a verb or adjective and used when reading a statement to another person. For present tense sentences ending with a consonant-ending verb stem, ‘-는다고 하다’ is attached, while ‘-나다고 하다’ is attached for vowel-ending verb stems. For present tense sentences ending in adjectives ‘-다고 하다’ is attached regardless of the ending. For present tense sentences ending with a noun, ‘...이라고 하다’ is attached for consonant-ending nouns and ‘...라고 하다’ is attached for vowel-ending nouns.

12 양치질을 못 할 정도로 손목이 아파

12-1 -다(가)

- 가: 어디 불편해요?
나: 짐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 가: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나: 미안해요. 지하철에서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갔어요.
- 가: 민우 씨, 왜 다리에 김스를 했어요?
나: 핸드폰을 하면서 걷다가 넘어졌어요.
- 가: 피곤해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나: 아니요. 어제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꾴서 잠을 잘 못 잤어요.
- 가: 어제 요리를 하다 칼에 손을 베였어요.

‘-다(가)’는 동사에 붙여 어떤 일을 하는 과정이 그 후에 일어나는 상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보통 선행절의 행위나 상태에 폭 빠져 있거나 너무 집중해 있어서 어떤 일을 잊거나 놓치는 상황에서 많이 사용된다. 받침 유무에 상관없이 ‘-다가’가 붙으며 ‘가’를 생략하여 ‘-다’의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가)’ is attached to a verb and used to indicate that the process of an event may be the cause for a following situation. Usually, it is used in situations in which you forget or miss something because you are too busy or too focused on the act or state of the preceding clause. ‘-다가’ is attached regardless of the verb ending and ‘가’ can be dropped and used as ‘-다’.

12-2 -을/-ㄴ 정도(로)

- 가: 어디에서 먹을까?
나: 여기가 좋 서서 먹을 정도로 맛있나 봐. 여기 어때?
- 가: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와요?
나: 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오네요.
- 가: 안나 씨, 지난번에 산 책 다 읽었어요?
나: 네. 하루 만에 다 읽을 정도로 재미있었어요.
- 가: 케빈 씨, 어제 본 영화 어땠어요?
나: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코가 막혀서 좀 힘들어요.

‘-을/-ㄴ 정도(로)’는 동사와 형용사에 붙여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강조나 과장의 표현으로도 사용하는데 이 경우 관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ㄴ 이외의 받침이 있는 동사와 형용사에는 ‘-을 정도(로)’가 붙고 ㄹ 받침이나 받침이 없는 동사와 형용사에는 ‘-ㄴ 정도(로)’가 붙는다. 또한 ‘-을/-ㄴ 정도(로)’는 종결형에서 ‘-을/-ㄴ 정도이다’의 형태로 사용하기도 한다.

‘-을/-ㄴ 정도(로)’ is attached to a verb or adjective and is used to indicate the degree of the action or condition. It is also used as an expression of an exaggeration or emphasis on behavior or status, which often is used as an idiomatic expression. ‘-을 정도(로)’ is attached to consonant-ending verb stems except for verbs or adjectives ending in ㄹ, while ‘-ㄴ 정도(로)’ is attached to vowel-ending verb stems or verbs/adjectives ending in ㄹ. ‘-을/-ㄴ 정도(로)’ can be used in the form of ‘-을/-ㄴ 정도이다’ for sentence endings.

13 생활비가 많이 절약되더라고요

13-1 -는/-은/-ㄴ 편이다

- 가: 유미 씨는 신문을 볼 때 어떤 기사를 많이 읽어요?
나: 저는 경제 관련 기사를 많이 읽는 편이에요.
- 가: 생활비를 주로 어디에 써요?
나: 저는 식비에 많이 쓰는 편이에요.
- 가: 리나 씨는 주말에 보통 뭐 해요?
나: 저는 보통 집에서 쉬면서 책을 읽는 편이에요.
- 가: 지혜 씨,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어때요?
나: 출근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라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 가: 이 가게는 채소는 싼데 과일은 비싼 편이에요.

‘-는/-은/-ㄴ 편이다’는 동사와 형용사에 붙여 어떤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어떤 일이나 상태가 어느 쪽에 가깝다고 말할 때 사용한다. 명백하고 확실한 상황이나 사실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동사와 함께 쓸 때에는 ‘잘, 자주, 많이’ 등과 같은 부사를 함께 사용해야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동사의 경우 받침 유무에 상관없이 ‘-는 편이다’가 붙는다. 형용사의 경우 받침이 있는 형용사에는 ‘-은 편이다’가 붙고 받침이 없는 형용사에는 ‘-ㄴ 편이다’가 붙는다. 또한 ‘있다, 없다’로 끝나는 형용사의 경우에는 ‘-는 편이다’가 붙는다.

‘-는/-은/-ㄴ 편이다’ is attached with a verb or adjective and is used to indicate that a state or condition of something is close to a certain condition rather than being direct. It is not used for obvious facts or situations. When used with verbs, using adverbs such as ‘잘, 자주, 많이’ should be attached to convey the exact meaning. ‘-는 편이다’ is attached to a verb regardless of the ending. In case of adjectives, ‘-은 편이다’ is attached to adjectives for consonant-ending adjectives and ‘-ㄴ 편이다’ is used for adjectives ending with a vowel. For consonants ending with ‘있다, 없다’, ‘-는 편이다’ is attached.

13-2 -더라고(요)

- 가: 가계부를 써 보니까 어때요?
나: 제가 생각보다 필요 없는 곳에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 가: 와, 무슨 딸기를 이렇게 많이 사 왔어?
나: 딸기 철이라서 그런지 딸기가 싸더라고.
- 가: 리나 씨, 어제 콘서트는 어땠어요?
나: 너무 좋았어요. 가수들이 노래를 정말 잘 부르더라고요.
- 가: 현수 씨, 사막 여행은 어땠어요? 정말 궁금해요.
나: 낙타를 처음 타 봐서 그런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 어제 새로 개봉한 영화를 봤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더라고(요)’는 동사와 형용사에 붙여 과거에 직접 듣거나 보거나 경험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지금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사용한다. 과거에 경험한 때를 기준으로 동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았더라고(요)/-었더라고(요)/-였더라고(요)’를 사용한다. 동사와 형용사 모두 받침 유무에 상관없이 ‘-더라고(요)’가 붙는다.

‘-더라고(요)’ is attached to a verb or adjective and is used when the speaker is conveying new facts that have directly been seen or heard in the past to someone. When the action has been completed based on the past experience ‘-았더라고(요)/-었더라고(요)/-였더라고(요)’ is used. ‘-더라고(요)’ is used for verbs or adjectives regardless of the ending.

14 한국으로 여행을 한번 가 보지 그래요?

14-1 -아도/-어도/-여도

- 가: 아무리 비싸도 친환경 제품을 사고 싶어요.
나: 맞아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 가: 회사 생활이 힘들어도 계속 다녀야 할까?
나: 너무 힘들면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 가: 요즘 아무리 많이 자도 너무 피곤해요.
나: 병원에 한번 가 보는 게 어때요?
- 가: 열심히 공부해도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아서 힘들어요.
나: 공부에는 끝이 없다고 해요.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요.
- 아무리 급해도 보고서 내용은 꼼꼼하게 확인해야 돼요.

‘-아도/-어도/-여도’는 동사와 형용사에 붙여 앞의 상황이 뒤의 상황에 영향을 주지 못할 때 사용한다. 말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 ‘아무리’를 사용하기도 한다.

‘-아도/-어도/-여도’ is attached with a verb or adjective and is used to indicate that the preceding situation does not affect the following situation. ‘아무리’ is used when wanting to emphasize.

14-2 -지 그래(요)?

- 가: 요즘 핸드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예요.
나: 요금제를 바꿔 보지 그래요?
- 가: 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그럼 학교 진로 상담실에 상담 신청을 한번 해 보지 그래?
- 가: 요즘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고민이에요.
나: 운동을 시작해 보지 그래요?
- 가: 어제 산 옷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나: 가게에 다시 가서 교환하지 그래요?
- 기다리지만 말고 여자 친구에게 먼저 사과하지 그래요?

‘-지 그래(요)?’는 동사에 붙여 다른 사람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 사용한다. 주로 가까운 관계에서 사용하며윗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다.

‘-지 그래(요)?’ is attached to a verb and used to indicate making a suggestion or giving advice to another person. This expression is used between close relationship and cannot be used with seniors.

